

대외협력실 6월 활동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말에 한농연과 국회의원 김춘진 그리고 한국농업대학이 함께 주최·주관한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후계농어업인은 정부의 심사를 받아 선발된 청년 농업인력들이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 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정을 하여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였는데 동 제도를 2012년에 폐지 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농업의 명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향후 관련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하여 대 국회 활동 및 병무청과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월간한농연 7월호 발간

대외협력실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의 자부심 고취와 농업정책의 설명을 담은 월간 한농연을 제작한다.

월간한농연은 매월말 ~ 매월초 까지 지역 회원들이 받아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의견수렴을 받아 꾸준히 발전하는 한농연의 정책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강당 ◆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어민신문사, 농림수산방송(ATV), 한국4-H



농촌 이주 여성 농업인 모국 방문 지원 사업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며 한국마사의 농촌사랑기부금을 신청하여 올해 선정되었으며 농촌에 거주하고있는 이주 여성 농업인들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주여성 및 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농촌사랑기부금의 용도가 대북관련 사업을 하였지만 올해는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농촌 이주 여성 농업인 모국 방문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다. 향후 시도 및 시군구와의 업무공조를 통하여 지역의 이주여성들에게 고국을 방문할수 있는 기회 주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수있는 계기를 만들 생각이 다.

정부 및 농민단체 동향 파악

시시각각 변하는 농업계의 중요한 현안을 발빠르게 찾아내는 것 또한 대외협력실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민단체, 경찰, 농협등 한농연과의 관계가 있는 묶여있는 곳은 대외협력실에서 먼저 업무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동향 등 정보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한 동향 파악은 매주 시·도 및 시·군·구 연합회로 팩스로 발송이 되며 산하연합회에서도 중앙연합회에서 파악한 동향파악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보를 활용할수 있다.